

KOREA MARITIME INSTITUTE

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

● Contents

□ RHDHV, 인도네시아 항만개발 감독 계약	2
□ 나이지리아 레키 심수항, 2016년 완공예정	3
□ 브라질 의회, 270억 달러 규모의 항만투자 법안 승인	4
□ DHL, 싱가포르의 DNV 석유 운송 서비스 계약 체결	5

□ RHDHV, 인도네시아 항만개발 감독 계약

- 국제 컨설팅과 프로젝트 관리 회사인 Royal HaskoningDHV(RHDHV)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자카르타의 탄중항 확장건설 공사의 감독자로 계약체결
 - 인도네시아의 국유항만 운영자인 IPC(Indonesian Port Corporation)에서는 RHDHV를 주 컨설턴트로 하고 지역 부컨설턴트인 피티 아스트리아 스와스킵타 레카야사(PT Atria Swascripta Rekayasa)를 확장구간 1단계 감독기관으로 선정
 - 수백만 파운드의 본 계약은 북 칼리바루 터미널(North Kalibaru Terminal) 개발 예정
 - 확장구간은 2014년에 건설을 완료하여 연간 450만 TEU의 물량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
 - 해상무역의 국제허브로서 증가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인도네시아의 국가물류체인 강화 목적
 - 본 프로젝트는 약 5년간 추진되는 항만확장계획의 1단계로 인도네시아 탄중항만 확장계획은 1,800만 TEU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를 목표로 2023년에 완료할 계획
 - 허만 팔스(Herman Pals) 인도네시아 해사 및 수운 그룹관리자는 “인도네시아는 새로운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. 본 프로젝트는 남동아시아에서 매우 큰 항만개발중 하나이다.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며, 인도네시아항만을 지도에 넣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” 라고 언급

< 인도네시아 확장 항만 조감도 >



자료 : www.portstrategy.com

자료 : www.portstrategy.com, 2013.5.15

김우선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89, firstkim@kmi.re.kr)

□ 나이지리아 레키 심수항, 2016년 완공예정

- 나이지리아 라고스(Lagos)주 아파파(Apapa)항의 적체 해소를 위해 건설 중인 레키(Lekki)항은 2016년 3분기부터 완공되어 운영시작 예정
 - 레키항은 라고스 자유무역지대(LFTZ)에 BOT(Build, Own and Transfer)방식으로 건설 중임
 - 그중 180만 TEU 처리가 가능한 컨테이너 3선석 및 벌크화물 1선석과 액체화물 2선석이 갖춰지는 1단계는 2015에 완공될 것임
- 레키항 개발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대기업인 톨라람 그룹(Tolaram Group)과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협력 하에 추진 중
 - 톨라람 그룹이 전체 지분의 60%를,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20%의 지분을 가지게 될 것임
 - 전체 추정 사업비는 15.5억 달러로 이중 8억 달러는 이미 은행을 통해 투자가 이뤄졌음
-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36개의 관련 허가 중 33개를 이미 취득함에 따라 항만 건설 및 운영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
 - EPC¹⁾ 턴키방식으로 건설을 담당하는 CHEC(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)는 자체 인력과 장비를 2012년 8월에 투입, 시공 전 조사와 기반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
 - 또한 최근 6년간 시장 및 파급효과 분석이 모두 완료되었고 IFC/World Bank 기준에 맞춘 환경영향평가 역시 완료되었음
 -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은 오랜 경쟁 입찰 끝에 ICTSI(International Common User Terminal Operator)로 결정됨
- 레키항은 컨테이너, 건화물, 액체화물 등을 취급하는 다목적 물류허브로써 서아프리카의 관문항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
 - 라고스 본토에서 65km 동측에 위치하게 되는 이 새로운 심수항은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항만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임
 - 레키항은 완공 후 전체 항만규모는 90ha에 이를 것이며 하역능력 부족으로 인한 아파파항의 적체를 해소하고 나이지리아 무역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됨
 - 또한 항만 무상사용기간 동안 나이지리아에 약 3,610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1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

자료 : www.ngrguardiannews.com, 2013.5.12/ nigerianbulletin.com, 2013.5.16.

김홍매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28, hisgrace@kmi.re.kr)

1) EPC(Engineering, Procurement, Construction)방식: 설계, 자재조달, 시공을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방식

□ 브라질 의회, 270억 달러 규모의 항만투자 법안 승인

- 브라질 의회는 266억 달러를 항만부문에 투입하는 항만물류 투자 프로그램(Logistics Investment Programme for Ports, 2014년~2017년)¹⁾ 관련 법안인 MP595 승인
 - 만료시한이 목요일 자정까지였던 MP 595 법안은 목요일 오전에 의회에서 채택되어 저녁에 통과되었음
- 브라질 정부는 금번 MP 595 법안 통과가 브라질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
 - 브라질 정부는 금번 법안 통과로 2015년까지 152억 달러, 2017년까지 114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함
 - 이 새로운 입법을 통해 민간이 자기 소유의 화물 뿐 아니라 3자 화물 또한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브라질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킬 것임
 - 무엇보다 숙원이었던 항만 하역능력 확장을 허가하는 등 민간투자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가져올 것임
 - 법안은 또한 준설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음
 - 투자 대상항만은 브라질 동남부, 동북부, 북부 남부 등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²⁾

< 지역별 투자대상 항만 >



자료 : pre.keca.or.kr

- 새로운 법안은 6월 초부터 발효 예정
 -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안에 해당 법안을 공포해야함
 - 브라질 정부는 새로운 법안이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하겠지만 민간이 브라질 항만에 대한 투자를 다시 고려하고 준비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 -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이 수행되기에는 4~7년의 시간에 소요되므로 파라나구아(Paranagua)항이나 산토스(Santos)항의 적체를 당장 완화시켜주기에는 힘들 것임

자료 : 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, 2013.5.17.

전형모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17, hmjeon@kmi.re.kr)

1) KMI 국제물류위클리 182호 참조

2) 투자대상 항만: 동남부: Espírito Santo, Rio de Janeiro, Itaguaí and Santos, 동북부: Cabedelo, Itaquí, Pecé, Suape, Aratu, Porto Sul/Ilhés, 북부: Porto Velho, Santaré, Santana, Manaus/Itacoatiara, Vila do Conde, Belé/Miramar/Outeiro, 남부: Porto Alegre, Paranaguá/Antonina, Itajaí/Imbituba, Rio Grande, São Francisco do Su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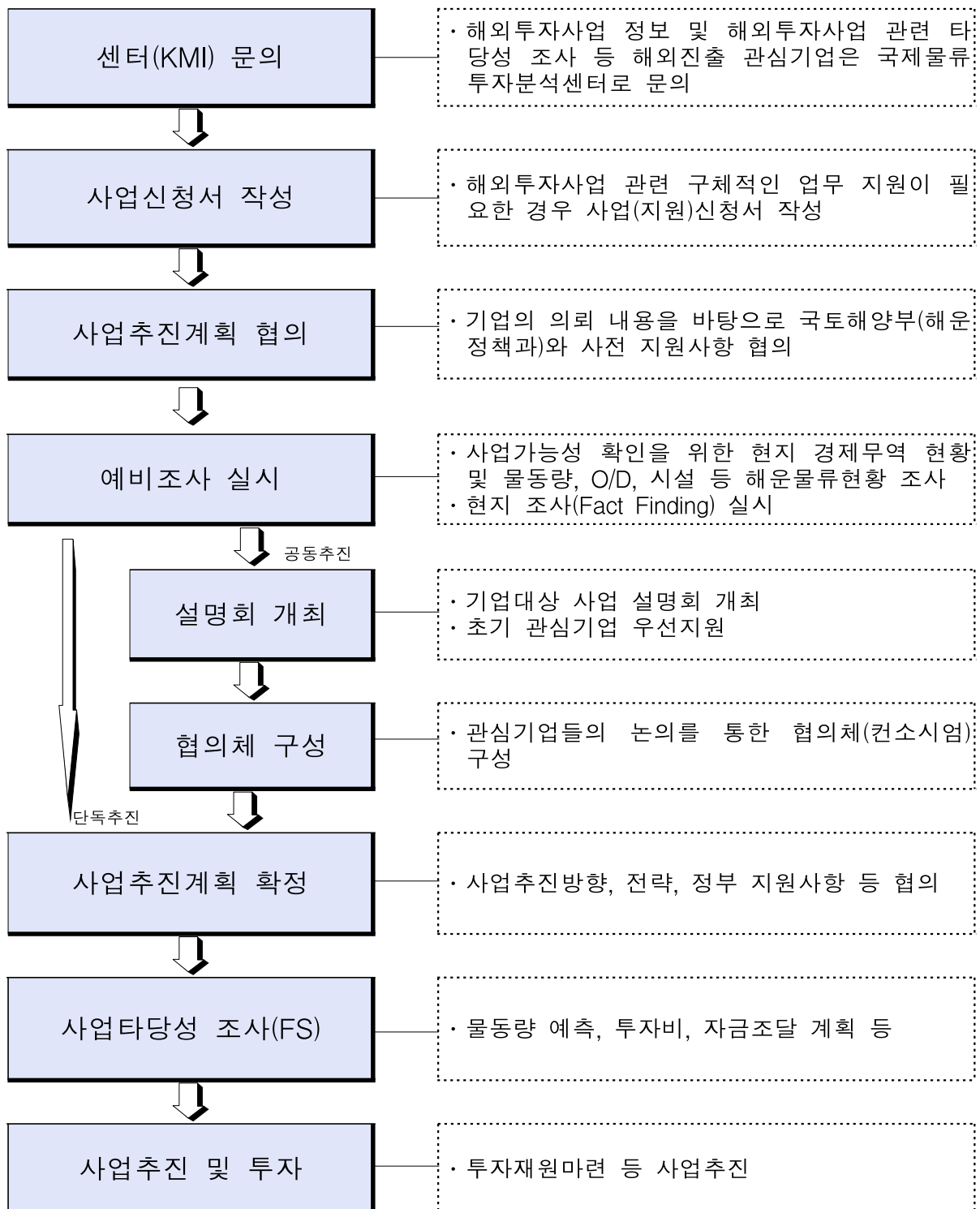
□ DHL, 싱가포르의 DNV 석유 운송 서비스 계약 체결

- DHL Express는 세계적인 석유 관리 및 제공업체인 싱가포르 DNV Petroleum Service(DNVPS)와 2년 연장의 운송계약을 맺음
 - 계약액은 약 320만 유로이며 DHL의 저탄소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으로 싱가포르를 포함한 로테르담, 오슬로, 휴스턴, 푸자와라 등의 지역에 제품을 운송 할 예정임
- DNPVS는 2011년부터 DHL과 친환경 운송서비스를 시작하면서 9만 번의 GOGREEN 선적을 하면서 1,000 톤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를 나타냈음
 - DNPVS는 향후 1,300톤의 이산화탄소 감소를 목표하고 있음
- DHL 동남아시아 지부 Yasmin Aladad Khan 수석부사장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 방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할 것을 밝힘
- DNPVS의 사업관리자 Karl Mathiesen은 자사의 사업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관리와 비즈니스 문화에서 환경보호 책임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을 밝힘
 - 이러한 맥락에서 DHL과 친환경 운송서비스 파트너십을 체결 한 것은 다음세대를 위한 노력이며 아울러 탄소 발자국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수단의 일환임
- DHL은 운송업계에서 세계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친환경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을 이용하여 남은 부분을 다시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
- 오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한국이 글로벌 메이저 배출권 거래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도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
 - 그러므로 향후 정부의 탄소배출량 규제에 관련하여 물류기업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친환경 운송서비스를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자료 : www.globallogisticsmedia.com, 2013.5.14/ 연합뉴스, 2013.5.20.

전혜경 연구원 (☎ 02-2105-2982, saeii@kmi.re.kr)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